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1월 12일(주일) 제1466호

다음세대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세대를 세워나갈 '2024 차세대교사'를 모집한다.

11월 19일까지 '2024 차세대 교사 모집' 국내 11개 캠퍼스 약 350명, 사랑부 30명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 11월 11일(토)부터 19일(일)까지 '2024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2024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국내 캠퍼스 약 350명, 사랑부는 30명이 필요하다. 온

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 부스,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2024 차세대 교사 모집 주간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차세대 교사 간증 및 특순이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캠퍼스 차세대 교사 모집은 각 캠퍼스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강정희 교사(서빙고 초등2부)는 "차세대 교사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목도하는 아주 귀한 자리"라며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이 귀한 자리를 놓치지 말고, 다음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당부했다.

2024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사사명교육'도 열린다. 12월 14일(목)

부터 1월 4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사랑부 02-570-734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 교사 모집 신청 QR〉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11월 18~19일 CGN 정기후원 행사

CGN 정기후원 행사가 오는 11월 18(토)~19(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후원,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주제로 열린다. CGN 정기후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CGN 웹사이트,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CGN 정기후원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제작한 '조셉 붓소와 함께하는 CGN 후원콘서트' 영상도 11월 17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영한다. 버스킹으로 전도하는

흑인청년 조셉 붓소(준섭이)의 온라인 콘서트 영상은 CGN 홈페이지와 유튜브, 기독 OTT '풍당'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CGN 말씀 달력을 출시했다.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로잔위원회 협력 목사들이 선정한 성경 구절을 삽입했다. 두란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796-2310(두란노서점),

02-796-2243(CGNG)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양재 사랑홀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6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이어진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차세대사역본부 소속 목회자들이 인도한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타고회 성도도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25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2023년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오는 11월 25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230명(명예권사 3명, 권사 227명), 안수집사 338명(남 139명, 여 199명)이 임직된다(11월 7일 기준).

권사·안수집사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를 입어야 한다. 지난 9월 2일(토) 개강한 '2023 임직자스쿨'은 11월 11일(토) 종강한다. '교회론과 목회철학',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일터영성', '안수집사·권사의 모델' 등을 주제로 훈련을 받았다.

/ 홍하영 기자

한국로잔위원회,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

한국로잔위원회가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6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순종하는 신앙: 로잔운동, 지상대위임령, 총체적 선교'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로잔위원회,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740명(현장 600명, 온라인 140명)이 참석했다.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는 정대서 장로 기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행함 파트너십 국제 대표, 전 로잔대회 신학위원장) 강의, 질 의응답, 기도회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은

교회와 사회,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이뤄가신다"면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포괄적인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총체적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하영 기자

공동의회

일시: 11월 19일(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임직자 후보 투표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살면서 알게 되는 슬픈 사실은 가장 아픈 상처를 가정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아무리 아픈 상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주신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믿음의 양보를 통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나타나 깨어진 가정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형제간에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고 파는 불행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서는 거짓으로 가족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 가족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질지라도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배신보다 측량할 수 없이 크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모습 잃어버린 가정

<창세기> 27장에 야곱의 가족 간에 있었던 여섯 번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여섯 번의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에 두 사람씩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삭과 에서의 대화, 5절에서 10절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 28~29절 이삭과 야곱, 30절에서 34절 이삭과 에서, 41절에서 45절 리브라와 야곱, 46절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구조가 보여주는 의미는 온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대화하는 장면이나 리브가가 에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약해졌을 때 에서를 축복하고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서에 자신은 즐기는 고기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엿 듣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에서에 하는 말을 엿 듣습니다. 리브가가 서둘러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 오라고 하고, 그 염소로 아버지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서 에서처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이 당황

합니다. ‘형은 몸에 털이 많고 저는 피부가 매끈해서 아버지가 만일 만져 보면 금방 탄로 날 것인데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밀어붙입니다. 야곱이 양털로 피부를 위장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이 위장한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고기를 만들어 온 에서와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하고 흥분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 계획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도피시킵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네 가지 문제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은밀하게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당시의 축복은 공개적으로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계상식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모두 불러 모읍니다. <창세기> 50장의 요셉도 축복할 때 모든 자녀를 불러 모읍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모두 모읍니다. 공적인 축복이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공포하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은밀하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삭의 영적 무지함이 있고, 에서에 대한 지나친 편애를 보여줍니다.

둘째,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편애하는 에서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에서에 집착했습니다. 1절에서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은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셋째, 그는 죽을 때까지도 아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엄숙한 행위입니다. 그 상황에도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를 에서에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사냥’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이삭이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

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까? 진정 에서를 사랑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자기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인내심 없는 조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4절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는 말을 보면 곧 죽을 사람 같은데, 이삭은 이 사건 이후 바로 죽지 않고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이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날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 같아”라면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얼마나 조급한 태도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과 조급함은 영적 눈이 흐려졌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속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결국 리브가의 계획을 야곱이 실행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이삭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무엇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 보아야겠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이삭이 야곱을 만져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21~23절).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털과 동물의 털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또 음성보다 자신의 감각을 믿었습니다. 음성보다 감각을 믿은 것은 굉장히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게 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심은 없어도 찬송을 불러 드리고 말씀을 읽어 드리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채널이 청력입니다. 듣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자신의 감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어쨌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거짓으로 속이고, 야곱과 아버지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 하는 말을 엿 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남편에게 듣지 못하고 엿 들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 때 문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입니다. 들어가서 남편에게 “에서만 축복하는 것은 옳

“하나님은 모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깨어진 가정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설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아야겠다는 조금 함, 자신이 사랑하는 아픔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에게 정중하게 직언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속이기로 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신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아이디어, 때로는 악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결국 아픔과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리브가가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삭의 복을 받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축복의 방향이 에서에서 아픔으로 바꾼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속임수는 죄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리브가는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저주를 감당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지은 죄의 값은 아픔이 감당해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당시 사회는 아버지가 곧 제사장 역할을 했고,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버지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말의 힘을 얼마나 굳게 믿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아버지가 말하고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선포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믿음도 있었습

니다.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말한 것을 얼마나 쉽게 취소합니까? 이 시대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문서를 만듭니다. 오늘날은 말보다 문서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문서가 아니라 말을 믿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내가 다 축복했으니 이제 남아있는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깐 하긴 했는데 축복이라고 보기 힘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아픔에게 속아서 한 축복이었지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거짓과 속임수로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삭의 무지함, 리브가의 간교함, 에서의 망령됨, 아픔의 간교한 속임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 미움과 분노,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아픔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아픔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아픔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27~29절).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아픔의 속임수로 깨어진

이삭의 가정이 죄를 그 당대에 끊지 않을 때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은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누이라고 한 것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 이후 아픔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보면 아브라함의 작은 거짓말이 세대를 흘러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내가 한 거짓말이 자녀 때에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세대에 거짓과 속임수를 끊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거짓과 속임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창세기> 27장에서 다섯 번이나 거짓말 했습니다. 깨어진 가정은 그 죄와 악이 자녀로 내려갈수록 더 심한 무게와 부피로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아픔이 깨어짐으로 에서가 아픔을 죽이려 했고, 아픔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은 아픔이 도망자가 된다는 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는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가정에서 누려야 할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어진 아픈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프고 상한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깨어진 가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여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 저녁예배를 인도하던 목사가 연로하신 목사님이 참석하신 것을 보고 예배 중에 앞으로 나오셔서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 선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와 함께 태평양 연안을 벗어나 항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 닥친 폭풍우로 인해서 해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배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세 사람이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구명줄을 누군가에게 던져줄 수 있었는데, 두 소년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 초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에게만 구명줄을 던질 수 있는데 아들에게 던질 것인가, 아들의 친구에게 던질 것인가? 그 몇 초의 순간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들의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뒤집힌 배위로 친구를 끌어 올렸을 때 아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시신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걸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줄을 던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멋진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연로하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포기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였고, 당신의 담임목사가 그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 편애하는 아들을 선택함으로 가정이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편애하는 자식만 사랑함으로 결국 자신을 사랑했고,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깨어진 가정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우상숭배의 폭풍을 이겨내는 ‘성경적 문화 만들기’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30년 전 잘못된 이념과 정책으로 인구 구조가 만들어졌고, 결혼과 출산할 인구가 줄어버린 인구절벽은 그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한 교회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부, 명예, 권력 등 세상의 우상을 열망하며 따라가는 우상숭배다. 둘째, 성경이 가르치는 성-생명-가정-결혼 제도의 원리를 무시함으로 인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다.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급격한 부의 축적, 권력과 명예의 획득을 목격했다.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 혹은 둘밖에 없는 자녀 교육에 모든 열정과 자산을 바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그 교육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산아제한을 통해 인구를 줄임으로써 같은 가계 소득으로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자녀들의 성공을 우상화해서 과열된 교육이 시작되고, 학교에서 같이 배우는 공교육과 별개로 사교육 시장이 번성했다. 내 아이에게 더 많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도박하는 심정으로 가진 것을 자녀 교육에 올인(All in)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욕심은 자녀들의 개성, 받은 은사, 육체적, 정서적,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가 황폐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주일에배에 가지 않고 한나라도 더 배워 좋은 대학에 가도록 부모가 독려할 때, 자녀는 부모의 우상을 함께 섬기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의심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지금까지 투자해서 성취한 것을 손해 보지 않을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저울질하지 않겠는가?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자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자녀들을 낳겠는가? 자녀 교육에 투자해야 할 돈을 생각할 때 아이 하나 더 낳을 때 교육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투자된 돈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도, 실제 성공하게 하지도 못했음을 자기 경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까닭에 결혼 적령기 많은 청년이 비혼이나 만혼을 선택하고, 설령 결혼한다 해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다. 그 청년들의 부모 역시 자녀 교육에 대한 맹목적 투자가 허망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자녀 교육 경험이 비혼의 자녀에게 결혼을 권하지 않게 하고, 결혼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추천할 논리를 잃어버리고 만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쌓은 경력을 결혼, 임신, 출산 과정으로 무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속 문화의 강력하고 큰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면서 오히려 전체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문화 속에 살되, 세상을 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세속 우상숭배를 거부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도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잘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멋진 예를 보여줘야 한다.

필자도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부모를 그 흐름 아래 무릎 꿇게 하려는 바알과 같은 우상임을 지속적으로 느꼈다. 주위 친구들과 사교육 시장은 그 흐름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우리 부부를 계속 위협하며 무릎 꿇기를 종용했었다. 그것을 거절한 우리의 선택은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좋은 기숙학교에 보내면 학교가 잘 알아서 교육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해였다. 미국도 좋은 중고등학교일수록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동일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 명확하게 배운 것은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녀만 잘 교육받겠다고 그들이 사는 세상 전체가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이 경쟁적일수록 그 사회는 험악하고 살벌해진다. 동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야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나와 내 자녀들도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고무적인 점은 세속의 사교육 흐름에 무릎 꿇고 동참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깨닫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자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사교육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성경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도록 교육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들의 성경적 자녀 교육의 최종 결과를 쉽게 장담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무신론 세계관 분별하기

강애리 목사
(드보라선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혹은 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뉜다.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계몽주의 이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무신론이 주류를 이루는 모더니즘을 지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전환을 이루게 한 게 과학주의이며, 그것의 중심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해 준 진화론이 있다.

모더니즘: 무신론의 모더니즘이 자유주의 진영의 인본주의와 공산 진영의 마르크스주의의 쌍둥이를 탄생시켰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이란 진화 중인 짐승이므로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자살과 살인의 선택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잘못된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인 이웃과 세상을 바꾸는 게 해결책이다. 급진적 폭력적인 인본주의 프랑스혁명과 공산주의의 러시아혁명이 그들의 해결 방식이다. 모더니즘은 이처럼 집단 전체 혹은 국가를 변혁하는 전체주의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진영과 무관하게 독재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죽음이 개인 존재의 끝이며, 사후세계나 우리를 심판할 신은 없다고 믿는다. 이 세계관으로 인해 현세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할 때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말 태동했고, 1970~8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가리킨다. 히틀러 인본주의의 나치즘, 스탈린의 강제노동 수용소 독재를 목격한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 색채는 모두 버리고,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념을 만든 게 포스트모더니즘이다. 그들은 파리의 지식인으로 부유한 부르주아의 생활을 했지만, 한때 공산주의자였다. 혹자는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의 드러난 치부를 가리기 위한 언어적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로 표현한다. 이들은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어의 명확한 뜻을 흐리게 만들고 변경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 한다. 세상의 문제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해결책은 소수에게 가해진 억압을 깨뜨리는 혁명에 있다고 말한다. 즉, 이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모더니즘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파괴적이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은 종종 동일시되지만, 학자들은 이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을 주체로 두고 지적,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옵션들을 추가한 시대를 말한다. 교통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에게 로봇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에서, 점점 대체하는 부위가 많아지면서 인간의 기능적 향상을 꾀하지는 것이다.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비인간, 인공-자연의 이분법적 대립을 거부한다. ‘무엇이 주체인가’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들의 시대를 말한다. AI와 연결된 두뇌를 가진 사람, 클론, 아바타가 인간인가? 어떤 사람은 ‘트랜스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로 나아가는 이행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로봇과 아바타, 메타버스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어진다.

무신론적 세계관들의 공통점: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삶의 기준이 되는 진, 선, 미, 정의에 관하여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무신론자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본다. 절대적인 도덕이나 정의의 기준이 없을 때는 두 집단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방법이 없다. 결국에는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세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할 때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성(性)과 이성

충분한 친밀감, 안정감, 가치감,
가장 좋은 성교육이자 이성 교육!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종종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유혹을 당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집주인의 아내에게 성적 유혹을 당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다. 그만큼 성적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뿌리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질풍노도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어떨까?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에 들어온 청소년들의 고민을 보면, 성(性)과 관련된 문의를 한 청소년이 68.4%였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과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교육하면 좋은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첫사랑, 짝사랑, 풋사랑이 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했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경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부모가 지나온 시간을 그대로 지나고 있다. 누구나 겪는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알아차리고 공감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성 교제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어떤 이성에게 끌리는지,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떻게 건강한 이성 교제를 안내하고 지도할지를 배웠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이성 친구는 ‘부모의 대리인’이다.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중요해진다. 그중에 이성 친구는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친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친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다.

아이들은 어떤 이성에게 끌릴까? 부모와 비슷한 사람 또는 부모와 정반대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가족상담 이론에서는 이것을 ‘이마고’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마고는 라틴어로 이미지(image)를 의미한다. 이미지는 대뇌피질 안에 저장된다. 부모와의 모든 경험이 이미지로 대뇌피질에 저장된다. 이마고 이론에서는 우리가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선택할 때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대뇌피질에 저장된 이미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말한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 역시 그랬다.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해서 배우자를 선택했다. 어릴 적 가난했지만, 책임감 있고, 유능하고, 탁월한 아버지의 모습이 좋았다.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하지만 유능한 사람을 배우자로 골랐다. 또 내 부모님은 목회하시느라 늘 바빴다. 어릴 때 부모님의 보살핌과 챙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나를 챙겨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다. 연애 시절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 지하철역 앞에서 우산과 바람막이를 들고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정립된 내 이성관이 이성 교제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충분한 친밀감과 가치감, 유능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것

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과 애정을 이성 친구에게서 채우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을 쉽게 내어준다. 이성 친구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이성 친구가 원하는 것들을 내어주려 한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이성 교육을 해주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충분한 친밀감, 안정감, 가치감이 가장 좋은 성교육이자 이성 교육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성관을 정립한다.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좋은 이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만날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큰 사랑을 자녀에게 줘야 한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이성관을 세우고, 바른 이성 교제를 하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5편 성·이성’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그림 명남희

57. 감사로 십일조를 드려요(2)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1월 6~7일 본문)

1. <잠언> 12장 22~26절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1)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 사람들은 기뻐하신다(잠 12:22).

2) ()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게 된다(잠 12:24).

3) 마음속의 ()은 자신을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잠 12:25).

2.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의인의 특징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잠 13:1~5).

- ①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 ②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본다
- ③ 생명을 지킨다
- ④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한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뉴스

“책 읽고 독후감 쓰자!”

온누리교회 도서관, 차세대 독후감 대회 개최

친구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경문화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이야말로 독서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래요.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에 온누리교회 도서관을 방문하는 건 어때요? 온누리교회 도서관은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에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니 꼭 한번 가보세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독후감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은 12월 3일(일)까지 ‘

창조’ 관련한 책이나 <천로역정>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에 제출하면 돼요. 다른 캠퍼스 친구들은 우편으로 독후감을 보내면 참가할 수 있어요. 우편으로 제출할 친구들은 12월 3일(일)까지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보내야 해요. 대상 도서가 온누리교회 도서관에 있으니까 직접 와서 빌려도 좋아요. 집에 있는 책을 읽어도 됩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리(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독후감은 200자 원고지에 써서 제출해야 해요. 컴퓨터로 내용을 써서 프린트하거나 빈

종이에 그림을 그려오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 써야 해요. 200자 원고지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 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7일(일)에는 시상식이 있어요. 선물도 주니까 꼭 참가해 보세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사회대회와 독후감 대회를 열고 있어요.

문의: 02-3215-3110



지난해 '차세대 독후감 대회' 작품

2023 CGN 정기후원 행사

선교 미디어 CGN, 어디서나 모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선교 도구로 쓰임 받는 꿈

숫자로 보는 CGN



정기후원자 약 42,000명

TV 365일 7개 언어로 전 세계 방송



기독교 OTT '퐁당' 가입자 약 13만 명

유튜브 구독자 약 163만 명

(2023년 11월 기준, 해외 및 콘텐츠 채널 합계)



CGN의 전신은 위성방송 CGN-TV다.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의 영적 충전을 목표로 지난 2005년 개국했다. 당시 CGN-TV는 선교지에 안테나를 달아주는 '드림온 캠페인'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선교사들에게 CGN-TV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

그런데 CGN-TV 개국 당시만 해도 모든 이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CGN-TV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당시 하용조 목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CGN-TV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당신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이 CGN-TV 사역에 '올인' 하는 첫날"이라는 선언도 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CGN-TV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CGN-TV를 성장시켰다. '상업광고 하나 없이 전 세계에 순수 복음방송 전파'라는 그 꿈을 실현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어려운 일을 실현하게 한 원동력은 방송 선교사로 헌신한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이다.

하나님 은혜와 그 백성들의 헌신으로 CGN-TV는 계속 비상했다. 케이블, IPTV, 모바일, 유튜브 채널에 이어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퐁당'

(Fondant)을 2021년 2월 론칭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도전을 거듭했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도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 번의 도전, 그 이름 'CGN'

지난 3월, CGN이 '선교 미디어'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 이름 'CGN'으로 거듭났다. 사명을 바꾸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선택했다. 그 아름다운 동역과 후원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CGN과 동역하는 정기후원자가 4만 2천여 명이다. 그 헌신과 후원이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잘 알기에 CGN 임직원들은 늘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CGN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드림온맘, 드림온앤즈 등의 헌신도 잊지 않고 있다.

기독교 OTT '퐁당'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재미와 유익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교회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을 돕는 'AI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기독교 OTT '퐁당' 콘텐츠를 소비할수록 개인에게 꼭 필요한 신앙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도 모르게 혹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앙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 앱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 TV에서도 기독교 OTT '퐁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서 활용성이 매우 크다. 특히 기독교 OTT '퐁당'의 '클래스' 기능에서는 크고, 작은 그룹별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와 '커뮤니티' 기능을 무료로 지원한다. 양육에 도움이 되는 영상 커리큘럼도 그룹별로 지정할 수 있고, 과제 제출과 진도 체크 등도 가능하다. 교계의 호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2022년 KWMA 자료에 따르면, 장기 선교사 65%가 50대 이상으로, 30대 이하는 전체 8%가 채 안 된다.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고라도 젊은 세대의 선교 헌신이 확 줄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회학교 운영이 힘들어 다음 세대 양육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인 국내 교회들도 정말 많아졌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 힘든 위기에 놓여있다. CGN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달려라퐁당' 캠페인이 그 대표적인 노력이다. 달려라퐁당 캠페인 수익금으로 다음세대가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고, 운동한 거리만큼 CGN을 후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후원 챌린지다. 올해는 성도 3,797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CGN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교회들을 지원하고, '퐁당 미디어콘퍼런스'와 '퐁당미디어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도다. 미디어 기술 교육, 목회에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섬김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퐁당미디어콘퍼런스'에 참여한 퐁당네트워크교회 두 곳이 자생적으로 연결돼 사역을 협력하는 사례도 있다. 기독교 OTT 퐁당 콘텐츠와 클래스를 목회에 활용하는 박동일 목사(거제광림교회) 이야기를 듣고 김형석 목사(북평제일교회)가 드론 및 로봇 축구, 음악, 성품 교육 등을 재능기부 했다.

김형석 목사는 "퐁당미디어콘퍼런스에서 박동일 목사의 간증을 듣고 지난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생각이 나 돕고 싶었다"면서 "기독교 OTT 퐁당에서 다양한 영상과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작은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덧붙여 "앞으로 퐁당네트워크교회들의 협력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기독교 OTT 퐁당이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세상을 잇는 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퐁당 글로벌 버전'을 론칭할 예정이다.

CGN이 교회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선교 도구로 쓰임 받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선교 미디어 CGN이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완수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



2023 달려라퐁당 참가자들, CGN 프로그램 '잇쉬의 서재', 퐁당미디어콘퍼런스 2023(왼쪽부터).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결혼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성경적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교회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1등 윤한규, 석다혜

돌봄서비스 제공과 가치관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 비혼이나 무자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결혼 및 저출산 문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미래가 걱정되었다. 결혼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 발표한 주제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가치관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여러 통계 자료와 기사를 통해 인구문제 원인을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의식 변화’, ‘인구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로 나누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육아 및 교육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교



회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어릴 때 교회에서 영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정말 좋은 강의였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때처럼 교회에 좋은 수업이 있다면 무조건 보낼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 기관의 역할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출했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 다양한 인재들이 있다. 그 인재들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육아 및 교육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양질의 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을 위해 교회가 보육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내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 법적인 기반을 다진 다음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교회에 있는 교육계에서 은퇴한 크리스천 고령자들을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요즘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을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교회에서 젊은 세대 맞춤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이벤트도 좋고, 유명인을 초청한 강연과 토크쇼, 결혼과 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 가치관 교육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넷째, 인구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 및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교회 내 리더십 교육도 필요하다. 교회에 다양한 기업 및 조직의 리더들이 많다. 그 리더십을 대상으로 기업이 실효성 있는 임신 및 출산 제도를 확립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올바른 기업 문화로 각자의 조직을 변화시킨다면 분명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 논의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온누리교회가 직접 실천해 보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지역 교회에 공유하고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미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교회들이 성경적 대안을 가지고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발표 자료는
QR에서 확인

2등 이수현, 정규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나라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열된 경쟁, 절망과 포기가 빠른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을 떨어지게 만들고, 끊임없는 출산을 저하를 일으킨다. 고령 임신과 난임, 낙태 등 출산 관련 문제들이 기술 발달과 더불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궁금하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생명 경시 풍조, 젠더문제 등 성경과 반대되는 혼란스러운 일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두고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해결 방안을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결혼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연애, 결혼, 출산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단계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연애, 결혼,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교회의 자원으로는 ‘물리적 공간’, ‘관련 분야 전문가 성도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 등을 떠올렸다. 수많은 교회의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활

용한다면 교회에서 결혼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은 첫째, 교회에서 보육 시설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고, 다음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할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둘째,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교육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 성도들 또는 공동체 대표 장로님이나 멘토님들께 이상적인 연애관, 건강한 가족의 모습 등을 배우는 장(場)을 마련하면 좋겠다.

셋째, 초보 부부들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육아 전문가가 된 선배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육아 및 부부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다. 이외에도 종교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만남 위주의 청년 매칭 프로그램, 결혼예배 장려 캠페인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의 많은 부분을 이미 온누리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시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더욱 홍보 및 보완하고, 부족하거나 놓친 부분은 새로운 기획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기대한다. 온누리 교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크리스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2등 송지나, 이한나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기독교적 사랑 그리고 가족

세상은 결혼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사랑’이 결여된 결과중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인 문제해결은 출산율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을 수단화하고, 심리적 질환이나 범죄와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주제로 ‘온누리 사랑 캠페인(Onnuri Love Campaign)’을 제안한다. 이 캠페인은 말씀에 따라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믿음’은 사랑의 정의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하나님 안에서 개인의 사랑을 회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God loves you’를 주제로 입체 메시지 카드

를 제안하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

2단계 ‘소망’은 말씀 안에서의 복된 가정을 꿈꾸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세대의 상처 대물림을 끊고 가정 예배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정사역 가이드북’과 ‘기독교 심리 상담 티켓’을 제공하여 개인이 가정 내 한 명의 선교사,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3단계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단계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필요인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족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새로운 가족 교육을 지원한다. 참된 사랑과 건강한 가정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굿즈로 ‘성냥’, ‘향초’, ‘생일초’를 구성했다. 이는 한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어, 그가 있는 가정을 비추고, 더 나아가 새 생명을 소망하고 열매 맺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상이 표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율과 가정 자체에 집중할 때, 교회는 더 본질에 다가 한 영혼의 사랑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 한 영혼이 회복될 때, 그가 있는 그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미래에서 사랑의 열매 또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1~7)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3장은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원문으로 보면, 1절에서 ‘나 바울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동사인 ‘기도한다’가 14절에 나온다.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1절에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친절한 번역이다. 원문에는 ‘말한다’라는 동사가 없다. 즉, 1~13절까지 상당히 긴 삽입 어구가 있는 형식이다. 아마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권위 있게 전달된다고 생각해서 길게 서술했을 것이다.

바울이 긴 구절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자기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이다. 바울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도이자 유명인이다. 하지만 당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직접 증명해야 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게다가 <에베소서>를 집필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매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으면서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의구심을 풀어야 했다. 1~7절의 내용을 통해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포로’라고 고백한다. 이는 타락한 세상이 자기를 가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사역의 목적에 따라 갇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도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이 자기를 억누를 수 없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다.

2절에서 바울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는 바울이 잘나서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한다는 겸손의 표현이다. 바울 능력의 원천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인식에서 비롯된 직분을 대하는 태도다.

3~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의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바울 자신조차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를 모두가 깨닫기를 바란다.

5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힘’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알려준다. 예수님 승천 이후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았고,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베소 성도들을 영적으로 고무시킨다.

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라고 고백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수용하자는 권면이다.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방인을 받아들이면, 마치 ‘파이 싸움식’으로 개인이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취하는 양이 더 늘어나는 ‘영적 시너지효과’라고 이해하면 좋다.

7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일꾼’이라고 소개한다.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

히 알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한다고 설명한다.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려는 진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의 포로로서, 은혜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자로서, 함께 상속자라고 인식하는 자로서,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일꾼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8~13절에도 이어진다. 그로 인해 14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11월 13~19일
<잠언> 16:1~19:29



목상포인트 1:

<잠언>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

의 계획이 무엇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할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며 경영이 이루어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한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만, 패역한 자는 말로 다툼과 불화를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 하면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성도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목상포인트 2: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상황을 판단하고 다툼을 피하는 게 성숙한 모습이다. 다툼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며, 공동체가 무너지기에 말을 아끼고 감정을 잘 조절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힘써야 한다. 성숙한 언어와 행실로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는 지혜를 묵상하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부유하면서도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삶에서 선택이 요구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성도는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다툼을 피하고, 시비를 그쳐야 한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과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악한 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굶게 하며 선을 악으로 다스리는 등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냉철하게 생각하며 성숙하게 행동한다.

목상포인트 3: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룬다. 대인관계, 재정, 마음의 문제 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일지 묵상하자.

▶자기 욕심을 따르며 공동체에서 나누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다. 의인은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께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며 그 마음을 강하게 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며,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입이 패역하고 미련한 것보다 낫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설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거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나의 걸음과 장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적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다짐하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는지 성찰하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내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줘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존귀히 여기며 보호해 주자.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족에게나 공동체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자. ▶나를 향한 동역자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무엇인가?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 지체들과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세 자매를 위해서!

하랑센터에 세 자매(예레트, 마그렛, 고은아)가 있습니다. 세 자매는 기니비사우에서 온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파주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몇 달 전 아버지마저 돈을 벌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세 자매는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회선교본부, 요셉공동체, 이랜드 복지재단과 후원자들이 재정을 지원해 주셔서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포천의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포천으로 전학도 오게 되었습니다. 세 자매가 새로운 터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기도해주시고, 생활자금과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고3인 예레트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마그렛과 고은아는 매일 센터 공부방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세 자매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과 처지를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센터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세 자매가 이 땅의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주시고.

/ 김익래 집사(포천하랑센터팀장)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죄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 이 질문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박수를 보낸다. 불편함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 같은 뜻과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편하고 갈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게 익숙해지면서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품 안이나 교회에서 찾을 게 아니

라 세상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에 힘쓰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되는 쌍방향의 역동성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세상으로 나

간다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다. 그러나 그 도전이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위험이 두려워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면 자전거를 배울 수 없으며, 물을 마실 각오 없이는 수영을 배울 수 없는 법이다. 죄의 유혹이 두려워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신앙 태도는 그리스도인을

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한다. 어떤 말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계속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노력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히 4:16).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고전 15:58).



신경호 목사
(갈렙청년부)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생명력을 잃고 타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라”는 역설의 답을 하고 싶다.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신앙의 건강함과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죄의 유혹에 노출될 것을 각오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살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그 노력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적극적 혹은 외향적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악한 자의 모든 불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갈등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처한다.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은 회피, 분노, 논쟁 등 다양하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좋은 대처 방법인지 판단해서 행동에 옮긴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할 일들이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그동안 취해왔던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부부 사이에 긴장감과 실망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 먼저 자신의 대응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로 회피를 선택하는 배우자라면 회피하는 습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갈등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며 싸우는 게 습관인 사람은 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늘 침묵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회피하고, 분노하고, 침묵하고, 자책하는 방식은 갈등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 부부가 갈등을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대처 방식은 온화한 ‘직면’이다.

밥호너&잔호너(BOB HORNER&JAN HORNER)의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에서는 부부가 갈등을 건강하게 직면할 것을 권면한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성장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갈등 이후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보다 서로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 부부 갈등

을 성장과 성숙의 관점으로 보면 이기고 지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지 않을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든 배우자를 몰아세우고, 논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된다. 성장과 성숙이 목표이기 때문에 부부는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인내하면서 성숙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직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넘치지 않고, 터지지 않을 정도에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직면을 하는 게 좋다. 서로에 대한 온화함도 필요하고, 낮아지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

밥호너&잔호너(BOB HORNER&JAN HORNER)는 사랑으로 직면할 것을 권면한다. 사랑과 직면이 상반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균형을 맞춰 갈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가장 먼저 갈등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가장 미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자신의 내면은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이다. 갈등이 생겼다면 모든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충동질했던 이유가 단순히 배우자의 행동과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건드려져서 화가 났는지 돌아봐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잘 돌아봤다면 직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다. 자신을 잘 돌아봤다는 의미 중 하나는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자신을 잘 돌아봤다면 마음이 안정되고, 상황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한 상태다.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자와 의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서로 감정이 몹시 상한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마음을 모으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부부의 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의지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부부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 갈등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대화의 자리와 장소에 앉았다면 이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시간이다. 우선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랑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근본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공격적인 말을 내려놓고, 온화함으로 진실에 다가서며 이야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 사

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단계에서는 회피를 선택하면 안 된다. 분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공격해서도 안 된다. 이기고 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논쟁을 택해서도 안 된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 전달법’으로 자신이 그 상황에서 느낀 점과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말해야 한다. 상대에 관한 판단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한다. 부부의 갈등 상황을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오해와 다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이 나에게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부부 갈등은 자신과 배우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측면이 있다. 회피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랑으로 직면함으로 갈등을 잘 이겨나가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사진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Love Dive'.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Love Dive'

11월 4일 크리스천 청년 72명 참석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Love Dive'가 지난 11월 4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렸다. 만 29세 이하 온누리교회 및 타 교회 청년 72명이 참석했다.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Love Dive'에서는 이서진 목사(온누리교회 대학부 총괄) '만남의 축복', 조웅호 교수(전 전주비

전대), 강미향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만남 그리고 결혼, 그 새 일을 행하시라니'를 주제로 강의했다. KBS 공채 개그맨 조래훈 MC의 아이스브레이킹, Unknown Crew의 워십 댄스, 폴투대학부 출신 신동환, 홍수미 부부, 하민철, 최민영 부부, 김민관, 이승미 부부의 연애 토크쇼도 이어졌다.

이예림 자매(대전 오메가교회)는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강의를 들어서 좋았고,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크리스천 결혼문화팀은 사회적 부모의 역할로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과 가치, 새로운 만남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밤!

사회선교본부 '사회선교축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내 일처럼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모였다. 사회선교본부 '사회선교축제'가 지난 11월 4일(토)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사회선교본부 사역자, 리더십, 봉사자 등 115명이 참석했다.

사회선교축제는 캠퍼스 블레싱, 이기훈 목사 설교, 사역간증(하랑센터, 맘앤맘스, 오병이어, 이웃사랑), 권사회 특순, 찬양사역자 나무엔 공연 등



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은정 성도(서빙고 이웃사랑팀 회계)는 "이웃사랑팀에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2023 엔젤트리' 사연 모집

사회선교본부에서 '2023 엔젤트리' 사연을 모집한다. 11월 24일(금)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QR코드,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연은 11월 25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캠퍼스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엔젤트리 대상자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직장, 이웃, 가족 중에서 선정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 신청서에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문의: 02-3215-3434



257기 결혼예비학교 수강생 모집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강의

257기 결혼예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강의를 업로드된다. 게시일로부터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유수열 강사, 김숙경, 황규복 부부, 김의수 센터장, 이연숙, 이범석 부부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말씀 해설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에서는 성도들이 평소 궁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말씀에 대한 해설과 중보기도 제목을 공유한다. 말

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daa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중보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도 된다.

문의: 02-6959-0001

환경재해와 인적재난에 대한 선교적 대응

제7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 개최

제7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이 지난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소망의 복음: 환경재해와 인적재난에 대한 선교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에서는 주제 발표, 조별 토의, 성경공부, 워크숍, 조별 보고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환경 문제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교회가 실천하는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나누는 장(場)이었다. 선교사, 목회자, 교수, 성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오 장로(동작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는 "환경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교회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교회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근삼 이사(KGMLF 이사)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환경에도 흘러가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은 국내외 선교단체 대표와 선교학 교수, 목회자 등으로 이뤄진 모임이다.

/ 홍하영, 김다예 기자

'부채탈출 119' 참가자 모집

50명 선착순, 홈페이지 신청 및 이메일 제출

'부채탈출 119'를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설계와 부채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나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js00322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문의: 010-8543-4645

02-3215-3434

화요성령집회 '인생수업'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화요성령집회 '인생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11월 14일 최성민 목사 '감당할 수 없는 절망' (대하 20:1~19), 21일 정한호 목사 '도무지 사랑할 수 없

는 사람' (눅 6:27~35), 28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유혹' (삼상 24:1~7)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따뜻한 겨울 선물해 주세요!"

NGO 더멋진세상,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에서 11월 말까지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 '성탄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서는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어린이 500명과 르완다 ECD유치원 어린이 180명에게 방한용품, 티셔츠, 어린이성경, 동화책, 간식 등을 선물한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6

87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11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

87회 성령수련회가 11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1층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1월 15일(수)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 회비는 3

만 원이다.

87회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 '성령님과 영적전쟁'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7197-2812

장로칼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



김광하 장로
(서빙고일대일사역팀)

1985년 하용조 목사님이 12가정을 일대일제자양육과 큐티로 훈련해 온누리교회 창립 멤버로 삼으셨다. 그때부터 일대일제자양육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온 귀한 제자 훈련 사역이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삶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을 훈련해서 제자 삼으셨다. 이 거룩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삶의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은 1986년 9월 본격으로 시작되었다. 일대일로 만나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동반자가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웠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새신자 4주 과정을 마치고 5주차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처음 접하게 된다. 동반자와 양육자가 만나 16주 동안 일대일제자양육을 이어간다. 예수님을 단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앙을 키운다. 새신자는 교회와 공동체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이 기다려지고, 기대하는 시간이 된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된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동반자 과정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다. 동반자 과정 16주를 수료하면 일대일양육자반에 참석한다. 16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과 자세를 배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진정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다.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은 한국 교회도 섬기고 있다. 타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및 리더십들을 양육한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거친 다음 그 교회 양육프로그램으로 정착하도록 협력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부모가 양육하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7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매년 어린이 200여 명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캠퍼스 및 해외비전교회가 온라인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함께했다. 이제는 청소년들과 어르신을 위한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개발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실천하려 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은 재소자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재활을 돕는다. 앞을 볼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점자책을 활용해서 훈련한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도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도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제자 삼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지난 38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장 주역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장할 거라 믿는다. 일대일제자양육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귀한 사역이다.

권사칼럼

카르페디엠(carpe diem)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세컨하우스가 있는 가평 집으로 며칠 전 아예 이사했다. 나이 들어가니 수시로 오가며 두 집 살림하기가 벅차다. 비어있는 집이라 날이 추워지기 전에 미리 이사를 마쳤다. 아직 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어수선했을 잠시 밀쳐놓고 곧장 서울로 향한다. 기다림이 있는 삶은 생기롭다. 내일 서울 교대 동기들과 문경새재 여행이 잡혀있다. 옛그제까지 살던 집인데 살림이 빠져나간 빈 집은 남의 집처럼 쓸렁하고 낯설다. 아직 세입자가 이사 오기 전이라 그동안은 서울 올 때 빈 집에서 잘 수가 있다. 남겨놓고 간 요와 이불을 폈다. 그런대로 잘 만은 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동기 모임에 참여하려는 열정이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 것 같다. 설렘으로 아침을 연다. 동기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동기라는 이름 하나로 어느새 세월의 경계가 무너진다. 격의 없이 자주 만나다 보니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친해진다. 동기이기에 알게 모르게 느끼던 시샘과 경쟁심이 사라지고, 넉넉하게 익어 가는 벗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가슴을 채운다. 여기저기 벅그는 웃음소리가 꽃으로 핀다. 여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이다. 유리알처럼 청명한 가을하늘이 높다. 3시간여 달려 문경새재에 닿았다. 흐드러진 가을이 외락 들어와 안긴다. 은행잎은 어느새 그리 노랗게 물들었는지! 선홍빛 붉은 단풍은 처연하기까지 하다. 사과도 배꼽을 내밀고 수줍은 듯 불을 붉히고 있다. 비쁜 일상에 매몰되어 계절도 잊고 살았다. 오랜만에 단련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햇빛에 거품을 시킨다. 졸졸거리는 맑은 계곡물에 세상의 번

잡한 소리에 찢었던 귀를 씻는다. 나오기만 하면 이리 좋은 것을 왜 그토록 미루었는가. 가을빛에 취하며 마음도 몸도 물이 든다. 한 줌 쥐어짜면 단풍물이 배어나올 것 같다. 늘 자연의 넓은 품에 안기면 힐링이 된다. 오묘한 창조의 신비 앞에 겸허해진다. 길을 걷다 잠깐 쉬면서 정일근 시인의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시를 읊조려 본다. 오늘날라 기다림을 노래한 시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오지 않을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자. 새로운 기다림이 있는 희망으로 밝은 내일을 살아가자. 현재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젊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누리며 감사하자. 과거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 부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자. 좀 무리해서 젊은 탓인지 무릎에서 신호가 왔다. 쉬어가는 것을 기다려주며 함께 걸어주었던 일행의 배려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따뜻한 벗들의 우정과 깊어 가는 가을을 가슴에 담고 돌아오는 귀갓길이 행복했다. 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또 다른 설렘으로 다음 모임을 기대한다. 순간순간 주어지는 행복을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카르페디엠(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날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순리에 순종하며 아름다움을 나타내듯 우리도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자.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 있음에 감사하며 살자. 사랑하는 벗들과 함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잡은 손을 놓지 말고, 서로의 위로자로 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거룩한 영향력,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노규석 목사
(안산M센터)

1993년 10월 첫 주, 온누리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외국인 근로자 돕기 바자회’가 열렸다. 그때 바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대일제자양육으로 훈련시키며, 서빙고온누리교회 미얀마 예배와 네팔 예배 등을 개척했다. 1994년 온누리교회가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1995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하는 ‘온누리미션’을 조직했다. 2002~2003년에 많은 러시아 형제가 러시아 예배를 찾아 안산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온누리미션이 안산에 러시아 쉼터를 개척했다. 이것이 2005년 ‘안산 온누리M센터’로 발전했다. 10여 년 동안 이주민들을 교회로 데려오던 선교에서 2005년부터는 온누리교회가 이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이주민 선교를 시작했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다문화 차세대 선교를 시작했다. 2011년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5M 목회 철학’을 선포했는데, 그중 하나가 온누리교회는 그 이름처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품는 모자이크 교회(Mosaic Church)가 되는 것이었다. 이 선교 비전이 2016년 안산 온누리M센터 건축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후 온누리M센터는 안산을 넘어, 김포, 화성, 평택, 남양주, 군산, 서산에도 세워졌다. 온누리M센터가 1천여 명의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자이크 교회로 성장했다. 지방 곳곳에서

온누리M센터로 이주민 협력 선교 요청과 함께 대만, 베트남, 태국 등 현지 교단들의 선교적 협력 요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가 30년을 맞이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 은혜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으로 시작된 풀뿌리 이주민 선교가 큰 나무로 성장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가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를 넘어 국내외 많은 이주민 교회와 선교지 현지 교단들과의 선교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이다.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 이주민이 251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약 18만 명의 유학생과 군 복무 중인 6천 여 명의 다문화 청년들이 있다.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국내 거주 이주민과 다문화 인구가 5백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콜먼 교수(영국 옥스퍼드 대학)가 한국이 저출산으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연구처럼 소멸하는 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를 품고, 아시아를 먹여 살리며, 아시아를 경영하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세계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계 선교에 헌신해왔다. 더불어 30년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신 열방의 이주민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이제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주민 수백만 명의 삶뿐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수천만 명의 가족과 그 나라들, 선교지 교회들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로 확장할 것이다.

23 장로사관학교를 마치며



/ 신재영 안수집사(양천공동체)

7가지 은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장로사관학교에서 주님이 나에게 7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다. 첫째, 나의 믿음과 은사를 깊이 돌아보게 하셨다. 장로사관학교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채웠다. 둘째, 주의 몸 된 교회를 자세히 알게 하셨다. 교회 조직과 캠퍼스, 사역을 직접 방문하고, 소감문을 쓰면서 개선과 개혁의 눈길로 교회 구석구석을 보게 하셨다. 온누리교회 역사와 묵회 철학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 주는 교회, 연약한 교회, 낮아지는 교회, 비전이 움직이는 교회를 깊이 묵상하게 하셨다. 셋째,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중보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장로사관학교 21기 선배 장로님들의 모습이 감동 그 자체였다. 7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동기 훈련생은 주안에서 더욱 든든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다. 교역자의 고충과 기도제목을 듣게 하셨다. 넷째, 나의 돕는 배필, 아내를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셨다. 아내는 더욱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요, 조연자요, 신앙의 동지가 되었다. 2박3일 이어진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부부 사랑을 회복하며, 주안에서 혼인서약 갱신을 하도록 하셨다.

다섯째, 고집스러운 나를 내려놓게 하셨다. 고집불통 요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치시며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나주셨다.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이 답임을 느꼈다. 여섯째, 장차 받을 고난과 수고도 감사와 자원함으로 받을 마음을 주셨다. 믿음은 행함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함을 더욱 알게 되었다. 장차 받을 고난과 수고도 감사함과 기쁨,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맡을 것이다. 일곱째, 기도의 시야를 넓혀 주셨다. 추천 도서와 캠퍼스 방문, 해외 선교, 사회선교, 대학 청년부, 차세대, 포전하랑센터 방문 등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시 알게 하셨다. 또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선교를 깊이 돌아보게 하셨다. 이 땅의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차세대와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는 따뜻한 장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였다. 과제 수행이 너무 고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목적이 있는 연단이요, 거룩한 수고였다. 그 은혜와 결실이 참으로 크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섬김의 장로가 지키는 영원한 커리큘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전정신 성도(강남C공동체)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어린 시절 나는 새벽예배를 다니며 성경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세상을 좇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말았다. 교회 선배들을 피해 다녔고, 찬양집회도 가지 않았다. 천주교 신앙인 남편을 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아들 둘의 엄마가 되었다. 자녀는 나의 자존심이고 훈장이었다.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을 이룬 어느 순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필요 없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나를 억누르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우울함에 밥도 먹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다. 어느 날, 유튜브로 이서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당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스스로가 한심한 날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는 메시지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아들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 문을 두드렸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을 깊이 경험했다. 어린 시절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던 아버지께 편지를 쓰면

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 동안 아버지께 대한 분노가 용서로 바뀌었다. 살아계시는 동안 많이 사랑해 드리지 못했던 게 죄송했다. 나의 자존감이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회복되었다. 그동안 남편에게 친절하지 못했다. 매일 바빠서 대화도 몇 마디밖에 나누지 못했다. 두란노어머니 학교에서 하루 3번 이상 남편을 안아주는 숙제를 내줬는데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웠다. 졸업할 무렵에는 우리 가족 모두 웃으며 서로 안아주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자녀의 발 씻겨주는 숙제를 할 때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자녀에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셨다.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그동안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자녀도, 남편도, 나 자신도 모두 망가트리며 살아온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두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방의 어머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한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고양은평 김학래 황찬우 이 경 윤경순		■ 동작 김문희 진종구 김민숙 최경옥 김유진 전현경 나춘자 김수연 노기환 전기훈 윤영은 김민석		최대곤 류지철 ■ 서대문 김가희 이미숙 김용욱 송효숙 신효경 신미리 이강민 정상근 최창식 김정민		박경희 김준영 조정은 김선민 한지연 이지현 하성현 이완복		최호중 이규환 ■ 영등포구로 강민성 김재경 강은혜 김영미 김희재 우현주 박유나 김동희 전영식 이명석 황주성 고현우		신혜성 우미정 이승연 장재은 최주영 김반석		이명근 이주호 이희정 유신원		도선영 김지은 정진우 박봉호 최인광 김태오	
■ 가정사역 박미정 정미선 이묘배 박세나 이재민 신상국 이정수 이규현		■ 관악구천 김민혜 배란희 박성목 이초섭 윤지희 김현미 홍지현 이원일		■ 마포 김명철 김영식 신아름빛나래 전심원 이영경 유혜란 이은홍 이장웅		■ 서빙고 김환석 강석훈 이영미 임서연		■ 성북 김정남 이성혜 전진경 이승민 조만중 강현원 지선미 박금선		■ 용산 최연진 이정민		■ 이촌 김정희 한제희 박소연 고은경 손문경 김정숙 임재우 황성훈 황유진 최지호		■ 특별한초대 정녹영 이교진		■ SNS 김명현 방경애 김찬우 정태용 김혜원 마유진 박기람 김성연	
■ 강서 김려원 이수경 김백광 장학성 손한결 고경환 이연호 김동섭 이영은 김순옥		■ 노원 황인석 기세충				■ 성동광진 두민균 김형준		■ 양천 양신일 김선규 윤정순 엄정숙 조보경 김은정		■ 일산파주 박승철 김종구		■ 한강 최진한 최석훈 한에스터 이주영 KWON KYONG MI DANIEL 이성은		■ 공동체없음 강보민 김영란 김의진 김은희		■ W 권신구 조성훈 박지훈 성창섭 박형석 정영성	
.....																	
수료예배: 11월 19일(주일) 3부 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수료예배대상자: 9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한 성도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9일 시간: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김상규 김제임스 박진경 안희원 이현승 이현주 최윤영 홍지수	조정화 강남C 김성운 김소희 김정자 김지희 박정훈 양효선 유성준 이경숙 이주희 차서영 최운용	김선주 박종미 한복희 과천의왕 강지선 판혜원 도곡 강은혜 김병주 박형룡 사명희 이진영	이기우 분당B 김병철 김수현 김재한 이재경 정희영 서초A 이계창 이정순 정조룡	심우태 정은경 서초C 남지연 서초D 심예진 이명재 정민수 송파B 김향미 이만호 전송이 정양진	양재A 김명효 이소현 정경옥 채규열 양재B 이선정 서정준 장일환 장준호 공동체 없음 오승리
강남B 강세현 우선영 이주영 장윤혜	강남E 분당A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서빙고〉 아제르바이잔(아사모)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꿈터 문의: 010-9976-3100	방글라데시 기도모임 매달 셋째 주일 오후 4시 문의: 010-5071-0144	Acts29홀 문의: 권역별 기도팀	아랍과 페르시아 기도모임 분기별 1회 주일 오후 4시 선교관 202호 문의: 010-3259-3561
인도선교사 기도모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2735-3807	일본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신관 302호 문의: 010-9349-5631	샬롬 이스라엘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시온홀 문의: 010-2930-2322	〈양재〉 다문화 차세대선교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JDS홀 문의: 010-6422-8376
몽골(아몽) 기도모임 온라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대면) 매달 1회 오후 7시 30분 문의: 010-9417-0759	소아시아(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5225-5522	인도 기도모임 격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4516-4710	파키스탄 기도모임 매달 둘째, 넷째주 토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3212-6902
	터사모(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베트남 기도모임 매달 1회 온라인 문의: 010-2944-8123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다락방에서 준비합니다.
2) 주소 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3)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온누리회사 000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오늘도 땀과 눈물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선생님을 위해 손을 모으는 마음으로 작지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시는윗분의 인도와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 연락처,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 4) 선물 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송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2) 자녀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① 자녀의 대상은 고3 및 12학년(2005년 이후 출생)까지입니다.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나이 확인 필요): 문구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완구, 옷, 책(동화, 위인전, 교양 만화, 학습지 등), 과자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서적,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에 보낼 때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용어 안내 : 선교사님→선생님, 기도→손 모음(노래), 하나님(예수님)→윗분(○수님), 교회→회사, 공동체→부서, 사역→업무 등
2) 보안지역 안내
① 공산권 - 중국, 베트남
② 이슬람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서아프리카-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③ 힌두교권 - 인도
④ 불교권 - 미얀마, 라오스
⑤ 각 공동체는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는 소포 포장을 하여 배송료와 함께 선교단체로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2) 2000선교본부
(02-3215-3208, ov2000@gmail.com)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체국 홈페이지(<http://www.epost.go.kr>)나 우체국 대표전화(1588-1300)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국제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31-336-1042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21-2	02-796-9700
더멋진세상	(04553)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 602호	02-2271-2246
바울선교회	(54308)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4길 30	063-254-8418
빌리온선교회	(087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층	02-879-1191
알타이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선교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703호	031-424-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한성교회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모퉁이돌선교회	(0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02-796-8846
FMnC선교회	(06698) 서울특별시 양재천로 19길 5 양재빌딩 2층	02-848-6251
GBT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3	02-2653-4270
GMP개혁선교회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길 25	02-337-7191
GMTC선교회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8 한국선교회훈련원	02-2649-3197, 070-4066-0114
GO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선교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	070-4006-5300
Inter-Cp선교회	(04386)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선교회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31-778-7931
OM선교회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031-698-2372
OMF선교회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SEED선교회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	(072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영등포동2가) 조광빌딩 301호	02-815-4052
한국WEC국제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 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4층	02-3142-0907
온누리M미션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031-491-9650
CCC(한국대학생선교회)	(03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2-8	02-397-6200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전 세계 75개국에 900여 명의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수의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비전을 따라 선교지에서 함께 불편함을 감내하는 선교사 자녀들 또한 작은 선교사들입니다. 언어와 환경이 낯설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척박한 선교지 환경에서 자라는 선교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정차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작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정성이 담긴 선물과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 박창홍 목사(2000선교본부)

선교사 자녀 간증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좋았고, 중국에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친구들이 엄마를 중국인이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부모님께 말했고, 부모님도 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일하시는 부모님의 사역지가 바뀌면 저도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오빠도, 동생도 저처럼 학교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싫다고 했었습니다. 어렵게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또 다른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년엔 중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M센터에서 플루트를 배웠고, 지금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합주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멋지게 연주하고 싶습니다.

M센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저의 꿈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국내 이주민 선교사 자녀 전진(13세)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본부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선교재단 재산종합, 영업배상, 가스배상 전속계약업체 선정
기간: 2024년 1월 1일~2025년 1월 1일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대상: 입찰 물건 72건
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 지급여력비율 180% 이상인 업체
절차: 마감 11월 17일, 결과 11월 21일
문의: 02-3215-3136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차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제이홀 세미나
일시: 11월 19일 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강동 온누리교회
강사: 정재한
주제: 크리스천 입양가정이 꼭 알아야 하는 자아의 심리화와 원조적 상처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CGN 후원,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한국 교회 섬김으로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풍당

“풍당은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작은 교회들이 사역과 콘텐츠를 공유하며 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김형석 목사 / 북평제일교회(강원도 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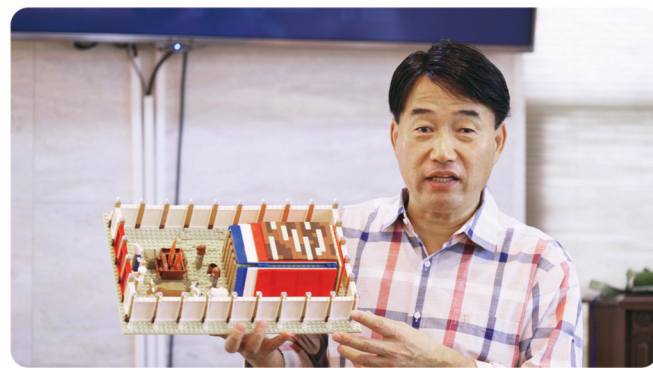


북평제일교회 김형석 목사가 로봇코딩, 성품,
음악교실로 거제광림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며,
풍당으로 연결된 두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CGN

“열악한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CGN의
미디어 사역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양정은 목사 / 백수남부교회(전남 영광)



CGN은 아웃리치를 통해 백수남부교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이블북 성막대작전> 콘텐츠를
제공해 예배의 의미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CGN과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종약후원